왜곡하고 싶은 역사 (I) - 유다의 카오스

(마1:1~6)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 때문에 한국의 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학자들까지 동원되어서 만주에 있는 광개토 대왕 비석을 연구하는 그런 논쟁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비문의 탁본은 네 글자 정도가 일본 사람들이 비문을 훼손시키고 그 망가진 네 글자 대신에 석회로 글자를 다시 조성해서 찍은 탁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그 왜곡의 이유가 식민지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과거에 문화적 열등했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일본의 의도를 알고는 더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합니다. 독일하고 비교해서 독일 사람들의 정직한 과거 사죄 행동에 비해 일본은 윤리가 땅에 떨어진 나라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일본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기까지 했던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담아낼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준비된 그릇인 만큼 이 족보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외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족보가 갖는 특징에 의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자체로 교훈이 될 수 있는 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봉독 하시는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자의 이름이 이 족보상에 42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다섯 사람의 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자가 다말입니다.
그 다말이 베레스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의 아빠가 누구냐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아시겠습니다만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방 가나안 땅의 여자로서 기생이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창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 족보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자가 룻입니다.
빈민이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또 족보에 끼어들고 마지막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윤리적 추악함의 정점이 소개됩니다.

다윗이라는 성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임금이 예수님의 별명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만큼 유명한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정실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후궁도 있었을 것인데 왕이 남의 남자의 부인에게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 준비된 그릇으로서의 족보 안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상한 책이에요. 자랑할 것까지 못 된다는 걸 빤히 안다면 드러내지는 말았어야지요.

42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어떤 여자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안 나타나는데 왜? 기생, 창녀의 이름이 나타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게 된 며느리의 이름이 나타나고 남의 남편의 아내에 있던 사람을 빼어서 동침을 해서 낳은 아기가 왜 족보에 끼어들어 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뒤로 감출 일이지, 뭐 벼슬 했다고 그 이름만 들어냅니까?
왜곡하고 싶은 역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에게 누가 될 수밖에 없을 이 본문, 걱정입니다, 여러분!
왜요?
성적 문화가 도착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요즘의 풍경을 생각할 때 교회가 성문화에 어떤 윤리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도착적인 성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 할까봐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근친상간이 있고 기생과 창녀가 끼어들고… 아, 이런 말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무슨 말로 대꾸를 하겠습니까?

왜곡하고 싶은 역사 1,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유다와 다말과 기생 라합과 그리고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 룻이라는 이방 여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역사 대하드라마 1편이 오늘 방영 된다고 보면 되시겠어요.

족보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담는 족보의 특징을 잘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닮는다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제대로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족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 사건과 그 결과로서 얘기가 등장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 때문에 생긴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머니가 옆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불러야 합니까?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까? 또 아버지가 계신 가운데 여러분의 어머니를 볼 때 형수나 재수 씨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어머니라고 불러야 합니까?
도대체 베레스를 놓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놓고 유다는 얘를 손자라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들이라 생각해야 됩니까? 또 이 다말은 시동생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들로 생각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이 얘기가 등장합니까?

유다의 인생을 그냥 잠깐 한 번 살펴보겠어요.
동생을 열 형제가 시기심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요셉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팔려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동생을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의 삶은 유다를 대표로 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렸어요.

동생을 노예로 팔 때에 유다가 말합니다. 열 형 중에서…
“굳이 죽일 필요까지 뭐 있냐? 팔아 버리자.” 원래 계획이 죽이는 거였거든요.
죽이고 아버지한테, 야곱 아버지한테 가서는 요셉의 옷을 벗겨 가지고 동물의 피를 묻힌 다음에 찢어 갖고 갖다 내 놓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동물에게 밥이 되어서 찢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를 허리에 동이고 오랜 기간 동안을 비통과 애통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도저히 동생을 팔아 버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기가 힘들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을 떠나서 새 살림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반해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인생의 순풍을 달고 아들 셋을 쑥~ 쑥~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자랐을 때 처음으로 손자를 품에 안을 꿈을 꾸며 첫 째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말 이라는 며느리와 잠을 자던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 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형이 결혼 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수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지 않고 형 대신에 밑에 남동생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이름 밑에 호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들부터 자기 아들이 됩니다. 계대 결혼 법이예요.

그래서 둘 째 아들 오난에게 첫 째 며느리 다말이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형이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대를 잇도록 하라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난이라는 둘 째 아들이 이 계대 결혼법을 따라 침실에 들어는 갔습니다마는 형수와 동침하는 가운데 자연 피임법을 씁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나서 둘 째 아들이 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마지막 아들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아직 아들이 어립니다.
이 때 유다가 말하기를 “너 친정으로 가라, 막내아들이 크면 너에게 남편으로 줄 테니까 기다려라.”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막내아들 셀라가 다 장성해서도 시아버지한테 기별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시어머니가 죽은 슬픔에 잠겨 있던 유다가 슬픔에서 깨어나서 양털을 깎기 위해 딤나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딤나는 어떤 곳이냐?
이 며느리 다말의 친정이 있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말에게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딤나에 온다던데!”
수절하고 막내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수절을 하며 과부복을 입고 있던 다말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복장으로 변장을 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목축업자들에게는 농부에게 추수 때처럼 축제의 때입니다.
술을 마시고 잔치를 여는 것이지요. 술을 마시고 잔치의 음식으로 배부른 유다가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아내가 없는 외로움을 타다가 여자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외모가 준수하고 고상한 기품이 흐르는 창녀를 만나게 되요.
얼굴을 가리고 유다에게 접근해서 창녀가 얘기하고 유다가 이 창녀에게 얘기합니다.
“하룻밤 그대에게 머물도록 하라.”
이 창녀가 얘기합니다. “내게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 “염소 갖고 오라” 염소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가 “무엇으로 네가 내게 염소를 줄 지를 보증을 서라.”
이때 유다에게 다말이 요청을 합니다. “도장을 달라.” 도장이 끈에 묶어서 목에 메고 다니던 거였어요. “도장과 그 도장을 묶고 다니는 끈을 달라.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를 달라.”
“그래! 염소 줄 때까지 네가 이거 보관하고 있거라.”

그리고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염소새끼를 주려고 친구를 시켜서 얼굴을 들고 갈 수 없어 창피해서 친구를 시켜 창녀에게 보냈는데 아무리 찾아도 동네 사람들 얘기는 그런 창녀가 이 동네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 버려둬라. 창피하다. 누가 알까 두려우니까 덮어 둬라.”
그래서 그 일은 그저 감쪽같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웬일입니까?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데 수절하라고 명령해서 친정으로 보낸 다말, 며느리에게 아기가 들어섰다는 소문이 유다 귀에 들립니다.
소문을 듣자마자 유다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밉니다.
그리고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놓고 공개 재판을 열고 그 며느리 다말, 수절하라고 명령했고 기다리라 했건만 간음하여 아기 갖게 된 그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에 태워 죽이려는 재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때의 형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돌로 쳐 죽이는 것 이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행하던 능지처참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난 유다는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장작을 쌓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불에 태워 죽이는 이유를 공포합니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인데 계대 결혼 법에 의해서 결혼을 시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간 남자와 간음하여 애를 가졌음으로 이제 장작불에 태워 죽이겠노라.”
모든 사람이 “아멘” 합니다.
이 때 활활 타는 장작더미로 질질 끌려가던 다말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비장의 카드를 제시합니다.

유다 앞에서 유다의 도장과 도장을 맸던 끈과 유다의 지팡이를 제시하며 “이 지팡이와 이 도장의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나이다.”
모든 사람이 유다의 지팡이 인 것을 알고 유다의 얼굴이 새파래지고 입술이 갑자기 마릅니다.
청천 하늘의 벽력이요, 사람들은 긴장하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유다와 다말을 번갈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 난국이 도대체 어떻게 귀결 될 것인가?

유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저 여자가 나보다 옳도다. 저 여자가 나보다 옳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작불에 태워서 죽여야 마땅할 죄를 진 여자, 수절해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외간 남자와 간음하여 아기를 가진 저 여자, 태워 죽인들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극악하고 추악한 죄인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몇 십 년 동안을 나와 살던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사이 돌아가기로 결정 할 때까지 유다에게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유다가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자기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로맨스를 생각하겠습니까? 성적인 쾌락을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뒤로 다시는 다말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기는 태어날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반성해 봅니다.
태어날 아기가 내 아들이냐? 내 손자냐?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자기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헝클어져 버리고,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인생이 끝장 나 버렸습니다.
유다가 '어떡하다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퍼뜩 생각나는 것이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죽이자고 했던 형들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누가 바꾸었어요? 유다가 바꾸었어요.
그 순간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루스로 도망가던 야밤에 혼자 돌베개 배고 자던 아버지를 하나님이 찾아 오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할 그 때에 유다에게 등 뒤에서 유다를 불렀습니다.
"유다야! 유다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양심의 가책으로 받아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바꾸어 팔아버린 것으로 끝을 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며 밥도 안 먹고 늙으신 아버지가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유다는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부름이었어요.
"유다야! 유다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 아버지께 그대로 얘기 해야지!"
견디다 못해 유다는 뛰쳐나갑니다.
삶의 환경을 바꾸어보고 일신해 보고자 집을 뛰쳐나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또 아기를 가

졌습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저희 집 같아요.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고 제가 태어났거든요.

순풍에 돛을 달고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기에 악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상하다? 받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당시 풍습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풍습이 어떤 게 있었느냐? 관계를 맺다가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 마가 낀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주지 않겠다고 말은 계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마는 다말을 보내고, 내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보내고 아들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아들을 키우지 못했으므로 아들이 악함으로 내가 데려갔다.” 말씀하시는데 문을 닫아 버리고, 귀를 닫아 버리고 며느리가 마가 낀 며느리라서 내 아들 둘이 목숨을 잃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남자가 아내가 없을 때 술 한 잔 먹고 배가 부르면 으레 여자 생각 한 번 나는 거고 길에 있는 창녀가 마음에 들어서 하룻밤 잤어요.

그랬는데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고 그 자연스러운 사건과 행동 하나 때문에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아이가 태어나 버리게 된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얘기합니다.
“불에 타 죽어야 할 저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불에 타 죽어야 할 만큼 추악한 삶을 산 저 여인보다 내 삶은 더 추악해 졌고 더 망가졌고 더 헝클어져 버렸구나.” 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닫고 스스로 이끌어 왔던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며느리에게 아기를 갖게 한 것이 대단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는 족보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것이 대단했기에 족보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족보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족보에 올립니까? 열두 아들이 있고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서 빵빵하게 나가고 있는 잘나가는 아들입니다.

왜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고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온 결과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헝클어져 버린 결과로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한 순간도 끌고 갈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유다를 열 두 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준비한 그릇으로 택하십니다.

이 유다의 마음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동네가 가나안 땅 전체가.
그래서 먹고 살 곡식이 없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곡식을 구하러 가고오고 하는 과정 중에 요셉이 계책을 써서 자기의 밑에 동생 막내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기 위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도둑질 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나중에 베냐민이 잡히게 돼지요. '내 은잔을 너희가 도둑질 했구나. 도둑질 한 베냐민 너는 집에 못가고 내 옆에 잡아 두겠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열 형제 중에서 유다가 요셉 앞으로 나가 동생 인 줄도 모르고 세월이 흘렀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44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 하느냐?

"내 주여! 우리 집에 있는 늙으신 아버지가 열한 번째 아들을 잃었을 때에 거의 죽다 살아 나셨습니다. 둘째 부인에서 낳은 아들은 그 잃어버린 아들과 막내 베냐민뿐인데, 요셉에게 부었던 사랑까지 베냐민에게 부어 가면서 인생의 낙으로 삼고 베냐민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늙으신 아버지는 이제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서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대신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늙은 아버지를 살려 주세요. 우리가 거짓말 하는 바람에 깊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베냐민마저 없어진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도 괴로워서 살 수 없으니 나를 노예로 받아주시고 베냐민을 보내 주시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이 때 요셉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모든 애굽 사람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이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맡아 부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세요.” 온 형제가 상봉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부탁하는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평생 베냐민 대신에 내가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할 자유, 소망할 자유, 이사할 자유, 계획을 세울 자유, 아무런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쉽게 요셉에게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평생 종이 되겠사오니 베냐민을 놔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 총리대신이여! 나는 더 이상 내 나머지여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자유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 봤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엉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오니, 당신이 내 여생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에게 노예로 살겠습니다.
총리대신이여!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소망을 가져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졌던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망가트리고 헝클어트리고 패망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계획할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이 마음을 덥석 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하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합당한 마음으로 열두 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마음으로 유다의 마음을 채택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인생의 낙오자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갖고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 가운데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는 담겨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끌어갔던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손대는 것마다 헝클어지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내 속의 무능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담아줄 그릇으로 받으셔서 하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아기를 갖게 하기까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자기의 의도를 갖고 살았던 유다가 며느리의 화형장에서 공개적으로 만인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내 인생을 끌고 갈수 없다”는 고백을 한 뒤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족보에 열두 아들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된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유다의 복된 생으로 바꾸며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기에 추악한 역사적 기록 안에 하나님의 절절한 아픔과, 사랑과, 애절한 섭리가 들어 있음을 되새길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등 뒤에서 유다가 곁길로 나갈 동안에 한 순간도 빠지지 않고 유다를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계획과, 내 소망과, 내 능력 전체를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어 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유다의 심정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으로 담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